

2026년 4월 1일

Hana FX Daily Letter

중전 낙관론과 WGBI 편입 개시, 오늘은 원화 강세

하나은행

외환파생상품영업부
이유정 연구원

달러/원 전망 및 동향

- **금일 전망 : 중전 기대감에 따른 위험회피 심리 완화로 하락**
daily range 예상: 1,500~1,515원

-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6주 시한'을 앞두고 양국 정상에 나란히 유화적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미-이란 분쟁 종식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됨. 이에 위험회피 심리가 완화됨에 따라 원화도 전일의 약세폭을 되돌릴 것으로 보임. 특히 9거래일 연속 이어진 국내중시 외국인 매도세가 진정될 수 있어 환율 상방 리스크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이에 금일 환율은 큰 폭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나,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점에서 하단은 지지될 것으로 판단. 또한, 저점 인식 속에 수입업체 결제수요 등 달러 매수세가 유입될 측면도 하락폭 제한할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
- **전일 동향 : 31일 달러/원 환율은 전일대비 14.4원 상승한 1,530.1원 마감**
이란전쟁 장기화 우려에 따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달러 강세를 자극하면서 4.2원 오른 1,519.9원에 개장. 장중 국내 중시 외국인 순매도와 역외 달러 매수세에 1,536.9원까지 급등 후 1,530원선에서 정규장 마감. 그러나 야간 거래에서는 이란 대통령의 완화적 발언에 낙관적 전망이 확산되자 1,515.7원으로 급락 마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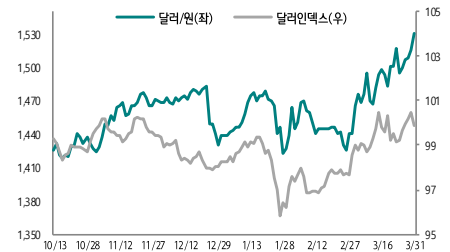
국제 통화시장 이야기

- (달러인덱스) 이란 대통령이 추가 공격이 없을 시 종전할 준비가 되어있다고 언급하자,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며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음
- (유로-달러) 중동 전쟁이 마무리될 수 있다는 기대감에 천연가스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가능성이 부각되며 유로화는 강세로 전환
- (달러-엔) 일본 당국의 잇따른 구두개입성 발언으로 실개입 경계감이 고조된 데다, 이란 사태가 조만간 마무리될 것이라는 낙관론이 더해지자 엔화 강세폭이 확대됨

하나에서 전해주는 FX New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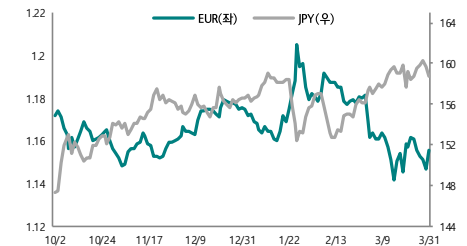
- 금일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 절차가 개시됨. WGBI는 약 2.5~3조 달러 규모의 글로벌 자금이 추종하는 세계 최대의 채권 지수임. 물론 실제 자금 유입 속도는 시장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으나, 이번 편입으로 국내 채권시장에는 11월까지 약 500~600억 달러 규모의 패시브 자금이 유입될 것으로 추정됨. 최근 이란 사태 여파로 국내 증시에서 3월 한 달간 약 35조 원의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었고, 이는 달러/원 환율 급 등의 주요 원인이 되었음. 주식시장 자금은 변동성에 민감한 단기적 성격이 강하지만, WGBI 추종 자금은 대개 안정적인 장기투자 자본이기에, 향후 자본 유출입의 균형을 맞추고 환율 변동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또한, 현재 고유가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와 시장 금리 상승 압박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편입은 금리 상승 압력을 제한해 실물경제 부담을 낮춰주는 쪽으로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 현재의 대외 악재로 인한 단기적 충격을 완전히 상쇄하기는 어렵겠지만, 이번 WGBI 편입은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을 지지하고 외환시장의 회복 탄력성을 높여주는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원화 환율 추이



구분	시가	15:30 종가	02:00 종가	NDF
달러/원	1,519.9	1,530.1	1,517.0	1,505.3

주요 통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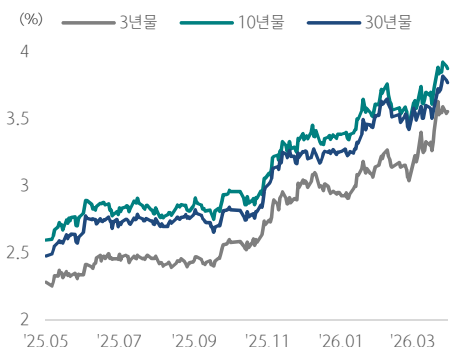


구분	EUR/USD	USD/JPY	USD/CNH
종가	1.1553	158.72	6.8884
전일대비	+0.0087	-0.98	-0.0276
재정환율	1,767.73	964.02	222.12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시간	지표	예상	이전
09:00	한국 3월 수출(YoY)	44.8%	28.7%
21:30	미국 2월 소매판매(MoM)	0.5%	-0.2%
23:00	미국 3월 ISM 제조업 PMI	52.3	52.4

한국 국고채금리 추이



본 자료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에 근거해서 작성된 것이나, 결과에 대한 정확성을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투자 등 금융거래는 본인의 책임 하에 진행되어야 합니다. 본 정보는 상품 가입 권유 및 유인 목적이 아닌, 고객 앞 참고를 위한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합니다.